

# Sports and Geography: Exploration for Spatial Approach\*

Haeyu KIM\*\*, Hyukjin LEE\*\*\*

Received: June 07, 2020 Revised: June 11, 2020 Accepted: June 20, 2020.

## Abstract

**Purpose:** Sports is an activity created by human beings and is related with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and it is a physical activity which inherently interacts with geographical properties. With the above views, it is clear that sports reflect human cul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places or spaces in terms of origin, propagation and diffusion, or geography in a broader sense.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porting activities and geography with an environmental vie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employed qualitative methodology to review the association between sport and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study reviewed the broad documents including journals, periodicals, reports and so forth. **Results:** First, since its inception in the 1960s, research on sports geography has been steadily studied in many international geography and non-geographic research journals. Second, it reflect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geography (relationship with physical geography and humanities). Third, as a spatial approach to sports, it is the place of sports, globalization of sports, and the tourist attraction of sport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 sport geography and could be applied to the current sports industry.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Sports, Geography, Spatial Approach, Globalization, the Tourist Attraction

**JEL Classification Code:** L83, M31, Z32

## 1. 서론

스포츠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흥미 있고, 가장 건강을 위해 추구하는 대표적인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용어들은 스포츠산업, 스포츠경기, 스포츠용품, 스포츠의류, 스포츠방송과 미디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브랜드, 그리고 스포츠관광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앞서 열거한 바 있는 용어들에 비해 '스포츠지리'란 용어는 아직은 덜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스포츠는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성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상이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 속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탄생하였다. 스포츠는 지역사회나 경제공동체 속에서 공유되어 발전한 인간 활동의 하나이며,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표출하고 있다.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면서, 자연과 인문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문화의 산물이다. 이런 배경에서, 문화를 반영하는 스포츠는 기원, 전파와 확산의 관점에서 장소나 공간, 다시 말해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리(Geography)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지리학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지표에 나타나는 인문·자연현상과 인간관계를 공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므로, 스포츠 활동 역시 공간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투영되는 인간의 활동인 면에서 지리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는 구체적 위치를 지닌 공간에 뿌리를 내린 인간의 문화현상의 하나이며, 장소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의 장소성은 지도위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점에서 지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지리는 1960년대 이후 해외의 지리학 저널을 통해 처음 소개되어왔으며, 현재에서 전 세계 스포츠 고유의 지리적 특성, 예를 들어, 스포츠와 시간·공간과 관련된 문제, 지역공동체, 이동성 및 지역정체성 등을 연구주제로 하여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0.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port Convergence,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top0191@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Arts,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hyuk2jin@eulji.ac.kr

© Copyright: Korean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KODIS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접근되고 있다. 스포츠지리는 광범위하게 말해, 인간의 스포츠현상을 지리학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포츠주체(인간), 장소성을 지닌 스포츠자원의 지리적 특성, 입지 및 개발, 스포츠지역(도시)의 형성, 스포츠산업 등과 관련된 공간적 상호작용을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지리에 대한 연구의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스포츠지리 연구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수행되었다. 특히 연구제목을 '스포츠와 지리: 공간적 접근을 위한 탐색'으로 정하고,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의 틀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범위와 내용은 첫째, 해외문헌리뷰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지리에 대한 배경 정립, 둘째, 인문과 자연지리를 활용한 스포츠와 지리와의 관계, 셋째, 스포츠의 공간적 접근으로서 스포츠의 장소성, 스포츠의 세계화 그리고 스포츠의 관광명소화를 포함하고 있다.

## 2. 이론적 배경

스포츠는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과 구분되며, 경쟁적인 신체활동이라는 면에서 놀이나 게임과도 구분된다(Bale, 1989). 반면 지리학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지표에 나타나는 인문·자연현상과 인간관계를 공간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며, 스포츠 역시 장소나 공간을 무대로 하여 인간이 창조한 사회·경제활동이라는 면에서 하나의 주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지리 분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지리학자 Rooney의 연구와 함께 시작되었다(Rooney, 1974). Wagner(1981)는 스포츠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선형적 연구로서 스포츠가 어떻게 문화, 장소, 사회적 관계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스포츠지리에 대한 연구주제는 해외의 지리학저널에 게재된 다수 연구, Progress in Human Geography(Andrews, 2017), Political Geography(Koch, 2013), New Zealand Geographer(Overton, Murray, & Heitger, 2013),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Shobe, 2008), Social & Cultural Geography(Conner, 2014; Lawrence, 2016), Geographical Research(Harris & Wise, 2011)과 비지리학 분야 저널에 게재된 연구, Mobilities(Cook, Shaw, & Simpson, 2016),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Bailey, Oliver, Gaffney, & Kolivras, 2016), Sport, Education and Society(Kohe & Bowen-Jones, 2016), Sport in Society(Chatzigianni, 2018; Purdy, Kohe, & Paulauskas, 2019; Sam & Hughson, 2010; Wise, 2017; Wise & Kohe, 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구테마는 스포츠지리 접근방법(Wise & Kohe, 2020). 스포츠와 도시환경(Sam & Hughson, 2010), 지역공동체의 스포츠정책과 정체성(Lee, & Tan, 2019; Skille & Säfvenbom, 2011; Zheng, Chen, Tan, Patrick, & Lau, 2018), 스포츠의 세계화(Andrews & Ritzer, 2007; Chatzigianni, 2018; Huang, 2013), 그리고 국제스포츠이벤트를 대상으로는 한 연구로서 Kohe & Bowen-Jones(2016)의 2012년 런던 올림픽 연구, Bailey et al.(2016)의 2014 FIFA 월드컵축구대회와 장소미디어 연구, Kwon & Oh(2019)의 복합종목 국제스포츠이벤트 생애주기에 대한 탐색적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대중적인 프로스포츠를 통한 스포츠의 장소성을 연구한 사례로서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와 장소의 정체성 연구(Shobe, 2008), 프로축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정체성에 대한 글로벌 이동과 흐름(Conner, 2014; Lawrence, 2016), 유럽농구의 지역성(Purdy et al., 2019)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의 세계화 시각에서 Harris & Wise(2011)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럭비유니언 리그, Wise(2017)의 럭비월드컵 연구, Overton, Murray, & Heitger(2013)의 2011 럭비월드컵 관련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스포츠 고유의 지리적 특성, 예를 들어, 스포츠와 시간·공간과 관련된 문제, 지역공동체, 이동성 및 지역정체성 등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 3. 스포츠와 지리와의 관계

### 3.1. 스포츠와 자연지리와의 관계

스포츠는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며 무대가 되는 자연환경(physical Environment), 즉 기상/기후 혹은 지형과 밀접하다. 특히 아웃도스포츠로서 산악, 수상, 지상 스포츠는 모두 자연환경 조건에 대한 인간의 극복 활동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대부분 동계스포츠의 기원이나 탄생은 자연환경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스키종목은 자연지형을 토대로 한 발전을 보여준다. 노르딕(Nordic)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일상생활 속 이동수단에서 출발해 현재의 스키종목으로 발전했고, 알파인(Alpine)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부유럽 알프스 산악에서 유래하여 경사를 따라 슬로프를 내려오며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다. 스키 경기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나, 자연이나 기후제약이 강해 열대/건조기후 지역에는 스포츠문화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마라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에서 기원하였으나,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는 발생지와 무관하게 아프리카대륙의 케냐, 에티오피아 선수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마라톤에서 자연환경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10 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사례로 살펴보면 스포츠와 자연지리의 영향관계는 명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시차, 계절, 고도 등 지리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당면 문제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시차는 거의 없었으나, 수리적 위치로서 위도(Latitude)나 지역적 특수성에서 날씨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 남부 유럽에 위치한 그리스는 수리적 위치로서 경도(Longitude)가 비슷하였지만, 상이한 기후를 극복해야 했다. 2018 년 브라질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남반구의 특수성, 전혀 다른 기후,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이국적인 자연경관 그리고 적지않은 시차 문제는 스포츠와 자연환경의 극복의 적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3.2. 스포츠와 인문지리와의 관계

스포츠는 공간을 바탕으로 관광, 교통, 경제, 문화, 사회 등 인문현상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다. 스포츠는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발달하였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온 인간의 대표적인 문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발생지 측면에서 볼 때, 인문지리학과도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을 갖는다. 스포츠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세월을 거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국가 전체로 더 넓게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의 4 대 문명의 전파, 중세 기독교 사회에 대한 각성과 르네상스, 지리상의 발견과 대탐험시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의 문화 전파와 이동, 식민지 국가의 문화흡수 등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특히 식민지 지배를 통한 스포츠의 전파와 발달은 영연방 경기대회에서 펼쳐지는 여러 종목에서 확인되고 있다. 크리켓(Cricket)은 스포츠 경기와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크리켓은 400 여 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인도를 비롯한 남부아시아와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다. 크리켓은 20 세기 중반부터 영국영향에 있었던 인도아대륙, 인도와 파키스탄 등지에서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인도 크리켓 프리미어 리그(IPL)는 유럽대륙에도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의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럭비 역시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져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전통적 15 인제 경기 럭비유니온(Rugby Union)과 여기에서 파생된 슈퍼럭비(Super Rugby) 등이 탄생하였다.

## 4. 스포츠의 공간적 접근

### 4.1. 스포츠의 장소성

스포츠에서 공간은 스포츠의 기원과 발생 및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고,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스포츠에는 장소성이 나타나며, 타 지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뚜렷한 사실이다. 이런 스포츠가 지닌 본질적인 특성을 '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는 객관적 위치를 갖고 있고, 물질적 현장 그리고 시각적 환경을 지닌 곳이면서 인간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Attachment)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팀이나 개인은 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스포츠는 기원, 종주국, 전파지역, 개최지 등 국가와 같은 구체적인 위치와 관련이 깊다. 축구(영국)나 펜싱(프랑스), 태권도(한국)와 유도(일본)는 대표적인 사례다. 축구는 역사적으로 19 세기 중반 시작되어 19 세기 말 오늘날 같은 형태를 갖췄다. 축구는 영국의 해외이주자에 의해 유럽과 중남미로 빠르게 전파되었는데, 이들은 축구가 영국과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민간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며 보급해 힘썼다. 펜싱, 태권도, 유도는 기원지의 언어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펜싱은 사용하는 검에 따라 플뢰레, 에페,

사브르로 구분되며, 프랑스에서 체계화된 경기인 만큼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다. 태권도는 차렷, 경례, 시작, 그만 등 우리 말 표현 그대로 경기가 진행된다. 유도는 Yuko(유효), Waza-ari(절반), Ippon(한판) 등 득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주국 일본어로 진행된다. 이것은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소성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스포츠는 지도상의 좌표 값을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 속에 실질적인 장소의 점유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스포츠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은 성지나 메카 같은 용어로 표현되며, 스포츠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장 누캄프(Camp Nou)는 1982년 월드컵, 1992년 하계올림픽 경기가 열린 것과 함께, 축구장 이상의 장소성을 갖고 있어 경기가 열리는 것과 관계없이 경기장을 둘러보는 관람객으로 붐빈다. 일본 스모가 열리는 도쿄 신국기관 주변도 경기가 열리는 기간 외에도 스모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이다.

셋째, 스포츠는 객관적 위치와 구체적인 현장인 경기장뿐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의 애착을 불러일으킨다. 프로스포츠는 연고지를 갖고 있는데, FC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축구의 대표 상징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1714년 에스파냐에 병합된 '카탈루냐'의 민족성을 대표하고 있으며, 카탈루냐 지역 주민에게 FC 바르셀로나는 축구경기만을 하는 단순한 스포츠구단의 의미를 뛰어 넘어 지역을 상징하는 매개체이다. 스포츠를 통한 장소 애착은 지역을 결속하는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외부인에게는 배타적일 수 있어 축구경기에서 폭력이나 지역 간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사한 배경에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캐나다 퀘벡 주 분리 독립과 관련된 이슈가 표면화된 바 있고, 돔구장 바이오돔은 현재도 프렌치 캐나다 몬트리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4.2. 스포츠의 세계화

세계화(Globalization)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과 시간이 압축되어 세계가 일체화되어 가는 것, 또는 이런 의식이 더욱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는 국지적인 면에서 벗어난 지역화(Localization)를 거쳐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고대올림픽의 발생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몇몇 국가의 참여로 출발한 근대올림픽경기대회, 단일 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월드컵축구대회, 1924년부터 하계올림픽에서 분리되어 개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 상대방 문화의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비롯하여 일본의 유도, 영국의 축구 등은 '중주국'이라고 단어가 지리적 특성과 결합되어 구체화되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대표적인 스포츠경기가 되었다. 스포츠 세계화를 아래와 같이 3가지 방향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정치적 세계화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유도해낼 수 있는 조직의 출현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스포츠전문기구나 다양한 스포츠경기 연맹 등의 역할이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는 장소와 사회적,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지역연구나 스포츠를 통한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스포츠의 장소애가 지나칠 경우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등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세계화이다. 스포츠산업 역시 경제적인 면에서 다국적기업 활동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런 글로벌스포츠 관련 활동은 전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통합된 지구촌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가 형성되는 지리적 장소는 목표지향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이벤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서로 다른 자연환경을 지닌 세계 여러 국가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스포츠이벤트를 열어 경기력을 겨룰 때 공간의 잠재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셋째, 문화적 세계화이다. 전 세계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며,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그 다양성을 인정받고 서로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현재의 세계스포츠는 인간이 이미 알고 있거나 배운 바 있는 지리적,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나 장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은 '상대방 문화 엿보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4년 마다 열리는 올림픽대회의 경우 입장식에서 볼 수 있는 각 나라의 행렬에서 각 국가의 국기나 의상을 확인할 수 있고,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속 국가 자체를 대표하고 있다.

## 4.3. 스포츠의 관광명소화

스포츠관광(Sport Tourism)은 신체적 참여를 위한 스포츠활동을 위해,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 스포츠와 관련된 매력물을 돌아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는 여가 중심의 여행이라고 정의되고 있다(Gibson, 2003). 세계화 시대의 스포츠관광은 글로벌스포츠이벤트(Global Sport Event)와 스포츠관광 매력물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첫째, 세계화의 진전은 스포츠가 갖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스포츠는 국제관계 무대에 있어 국가가 가장 부담을 느끼지 않는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로 활용된다. 세계화시대에서 글로벌메가이벤트는 스포츠마케팅의 중요 수단이며, 이를 통해 매력을 압축시켜 특정 기간에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다. 이런 이벤트는 올림픽, FIFA 월드컵과 같은 대형스포츠 대회를 포함하며, 개최국과 도시이미지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스포츠 열정과 재미가 한데 어우러져 지속적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해 지구촌에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더불어 스포츠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동력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유발과 고용창출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런 스포츠대회는 자국의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개최국이나 참여국 모두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개최지는 발전전략 일환으로 장소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많은 국가나 도시는 스포츠대회를 개발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고유의 공간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둘째, 스포츠관광매력물은 스포츠박물관, 명예의 전당과 같은 스포츠의 역사와 유물을 포함한 명소를 의미한다. 도시의 경우, 발전을 위해 도시의 상징물을 만들어내듯이 특정 공간을 스포츠를 위해 꾸미거나 창조해낸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위스 로잔 올림픽박물관(Olympic Museum)은 1993년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의 주도로 세워졌다. 1995년 '올해의 유럽박물관'으로 선정되었고, 스포츠와 올림픽운동에 관련된 올림픽경기대회의 세계 최대 기록보관소이자 매년 25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또한 영국은 축구경기의 중추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첼시, 리버풀, 볼튼,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같은 전통 있는 축구팀의 박물관을 비롯하여 최근 개관한 프레스턴의 국립풋볼박물관, Wimborne Tennis 박물관, 뉴마켓 경마박물관 등 명소를 통해 스포츠관광의 장소성을 살리는데 주력하였다.

북미의 경우 4대 스포츠의 발전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기념관을 조성하였다.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은 스포츠,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기념관, 단체, 모임을 말한다. MLB 명예의 전당(뉴욕 주 쿠퍼스타운), NBA 명예의 전당(미국 플로리다 주 스프링필드), 프로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오하이오 주 캔턴), NHL 명예의 전당(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플로리다 주 세인트 오거스틴)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도 MLB 명예의 전당은 야구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9년 세워졌는데, 소도시 쿠퍼스 타운에 세워진 배경은 1839년 애브너 더블데이(Abner Doubleday)가 이곳에서 야구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NHL 명예의 전당은 4대 스포츠 중 아이스하키를 국기로 하는 캐나다에서의 인기를 반영하듯 캐나다 최대도시 토론토에 세워져 있다.

스포츠관광매력물은 기념관 이외에도 미국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LA 애너하임의 야구경기장 혹은 일본 도쿄돔 같은 유명한 스포츠시설을 포함할 수 있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경기관람을 위한 방문 외에 역사적인 스포츠시설에 더 큰 매력을 가질 수 있다. 캐나다 밴쿠버 휘슬러는 동계올림픽 스키장으로서 뿐 아니라 하계휴가기간에는 MTB, 래프팅, 골프를 즐기고 스포츠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장소성을 갖고 있다.

## 5. 결론

스포츠는 인간이 자연 및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문화로서 지리적 속성이 강한 신체활동이다. 스포츠는 대중화와 보편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오늘날 세계화 시대 전지구촌에서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간 교류의 산물인 동시에, 그 기원, 전파와 확산의 관점에서 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지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스포츠지리 연구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탐색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지리 관련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이래, 해외 다수의 지리학저널과 비지리학 저널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둘째, 스포츠와 지리와의 관계에서 뚜렷한 특징을 반영한다. 스포츠와 자연지리와의 관계는 산악·수상·지상스포츠와 같은 아웃도어스포츠, 노르딕과 알파인과 같은 동계스포츠의 기원 그리고 월드컵축구대회와 같은 대규모 스포츠 경기대회 때 국가별로 적응해야 하는 스포츠와 자연환경의 극복을 위한 적응성을 보여주는 사례에서 확인된다. 또한 스포츠와 인문지리와의 관계는 크리켓이나 럭비와 같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해당 스포츠경기가 전파되고 발달된 사례에서 잘 확인된다.

셋째, 스포츠의 공간적 접근으로서 스포츠의 장소성, 스포츠의 세계화, 스포츠의 관광명소화이다. 스포츠의 장소성은 스포츠 중추국을 반영하는 경기의 장소성, 스포츠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장소성, 스포츠경기 이상의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성이 있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공간과 시간이 압축되어 세계의 스포츠가 일체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관광명소화는 글로벌메가이벤트의 활용이나 스포츠박물관과 명예의 전당 같은 스포츠관광매력물을 통한 명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현주소에 적용하여 볼 때, 다양한 스포츠지리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산업과 지리 관련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문화경제활동으로서 지역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둘째, 스포츠와 지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국제스포츠로 지리 잡은 태권도 뿐 아니라 국궁이나 전통씨름 같은 스포츠에 대한 고유성과 지역적인 관심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스포츠의 공간적 접근 활용이며, 장소는 스포츠 경기력에 영향을 주며, 스포츠를 통해 장소성이 표출된다. 글로벌스포츠이벤트는 장소의 특징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효율적 수단이므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1988 서울올림픽스타디움, 2018 평창동계올림픽시설 그리고 2002 FIFA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용 그리고 국내의 유명 프로스포츠나 사건을 보존한 스포츠기념관 건립 같은 상징명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ndrews, D. L. & Ritzer, G. (2007). The Global in the sporting glocal. *Global Networks*, 7(2), 135-153.
- Andrews, G. (2017) From post-game to play-by-play: Animating sports movement-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1(6), 766-794. doi:10.1177/0309132516660207.
- Bailey, K., Oliver, R., Gaffney, C. & Kolivras, K. (2016). Negotiating new narratives Rio de Janeiro and the media geography of the 2014 FIFA world Cup.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41(1), 70-93. doi:10.1177/0193723516680159.
- Bale, J. (1989). *Sports Geography*. New York: E. & F. N. Spon.
- Chatzigianni, E. (2018). Global sport governance: Globalizing the globalized. *Sport in Society*, 21(9), 1454-1482. doi:10.1080/17430437.2017.1390566.
- Conner, N. (2014). Global cultural flows and the routes of identity: The imagined worlds of Celtic FC. *Social & Cultural Geography* 15(5), 525-546. doi:10.1080/14649365.2014.908233.
- Cook, S., Shaw, J. & Simpson, P. (2016). Geography: exploring meanings, experiences and spatialities of recreational road-running. *Mobilities*, 11(5), 744-769. doi:10.1080/17450101.2015.1034455.
- Gibson, H. J. (2003). Sport tourism: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7(3): 205-213.
- Harris, J., & Wise, N. (2011). Geographies of scale in international rugby union – The case of Argentina. *Geographical Research*, 49(4), 375-383. doi:10.1111/j.1745-5871.2011.00714.
- Huang, F. (2013). Glocalisation of sport: The NBA's diffusion in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0(3), 267-284.
- Koch, N. (2013). Sport and soft authoritarian nation-building. *Political Geography*, 32, 42-51. doi:10.1016/j.polgeo.2012.11.006.
- Kohe, G. Z. & Bowen-Jones, W. (2016). Rhetoric and realities of London 2012 Olympic education and participation 'Legacies': Voices from the core and periphery.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1(8), 1213-1229. doi:10.1080/13573322.2014.997693.
- Kwon, K. S. & Oh, T. Y. (2019). Exploratory study of international sports event life cycle. *The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3(1), 1-17. doi: http://dx.doi.org/10.13106/kjsas.2019.Vol3.no1.1.
- Lawrence, S. (2016). We are the boys from the black country! (Re)Imagining local, regional and spectator identities through fandom at Walsall football club. *Social & Cultural Geography*, 17(2), 282-299. doi:10.1080/14649365.2015.1059481.
- Lee, J. W. & Tan, Tien-Chin (2019). The rise of spor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 social scientific journey through Asian-Pacific sport. *Sport in Society*, 22(8), 1319-1325. doi: 10.1080/17430437.2019.1621013.
- Overton, J., Murray, W. E., & Heitger, J. (2013). Pass the passport! Geographies of the rugby world cup 2011. *New Zealand Geographer*, 69(2), 94-107. doi:10.1111/nzg.12013.
- Purdy, L.G., Kohe, Geoff & Paulauskas, R. (2019) Coaches as sport workers: Professional agency within the employment context of elite European basketball. *Sport, Education & Society*, 24(2), 195-207. doi:10.1080/13573322.2017.1323201.
- Rooney, J. F. (1974). *A Geography of American sport: From cabin creek to Anaheim*. Reading, MA: Addison-Wesley.
- Sam, M. P. & Hughson, J. (2010). Sport in the city: Cultural and political connections. *Sport in Society*, 13(10), 1417-1422. doi:10.1080/17430437.2010.520933.
- Shobe, H. (2008). Football and the politics of place: Football club Barcelona and Catalonia, 1975-2005.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25(1), 87-105. doi:10.1080/08873630701822661.
- Skille E. Å., & Säfvenbom, R. (2011). Sport policy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3(2), 289-299. doi:10.1080/19406940.2010.547867.
- Wagner, P. L. (1981). Sport: Culture and geography. *Lund Studies in Geography, Series B*, 48, 85-108.
- Wise, N. (2017). Rugby world cup: New directions or more of the same?. *Sport in Society*, 20(3), 341-354. doi:10.1080/17430437.2015.1088717.

- Wise, N. & Kohe, G. Z. (2020). Sports geography: new approaches, perspectives and directions. *Sport in Society*, 23(1), 1-10. doi: 10.1080/17430437.2018.1555209.
- Zheng, J., Chen, S., Tan, T-C, Patrick, W., & Lau, C. (2018) Sport policy in China (Ma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10(3), 469-491. doi: 10.1080/19406940.2017.1413585.